

'후보 단일화' 화두 재부상

정동영 후보, 문국현과 '연정' 협상 이명박 후보, 심대평 흡수 급진전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범여권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후보단일화가 화두로 재부상하고 있다.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 입장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후보단일화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보수진영은 다 잡은 정권을 확실하게 지키려는 '굳히기'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의 진전시키고 있다.

단일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쪽은 역시 범여권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BBK 수사결과 발표를 확실한 반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속력을 내고 있다.

양측은 당 공식채널은 물론 중진급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채널을 풀가동

하며 정책연대 또는 연립정부(연정)를 명분으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당 원혜영 이계안 이미경 우원식 의원 등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해온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간 실무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후보 측 관계자는 2일 "BBK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지금 민주평화개혁세력의 결집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김갑수 대변인은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곧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확실하다'는 등의 일방적인 희망사함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정치도에 어긋나는 일"이

라며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는 '연본 플레이'를 통한 공개압박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발 빚겨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그러나 먼저 140명이 의원이 있는 신당이 수구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현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보수진영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는 이미 지난 주 큰 틀의 단일화 문제에 합의했고 현재 내년 총선 지분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 후보는 "지금은 누구를 선택할 단계가 아니다"며 외견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또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검찰수사 발표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 경우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박지성기자 jkpark@kwangju.co.kr

17대 대선 TV·라디오 방송연설 일정 확정

방송 鄭·李 44회... 昌 5회

'직장인' '무직자' 연설원 긴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대선후보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저녁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방송연설은 12명의 후보 중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5명이 신청했으며, TV 53회, 라디오 48회 등 모두 101회에 걸쳐 방송된다. 후보가 직접 나오는 방송이 54회, 연설원이 나오는 방송이 47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는 1회당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각 11회씩 22회, 연설원도 같은 방식으로 2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어 한 후보측에서 할 수 있는 방송연설은 모두 44회다. 선관위는 방송연설 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후보측에서 제시한 방송연설 일시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중복을 통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캠프별 자금사정이 반영돼 방송연설회 횟수도 천차만별이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정동영 이명박 후보측은 후보 연설회 22회, 연설원 연설회 22회 등 법정 최대횟수인 44회를 채웠다.

그밖에 권영길 후보 1회, 문국현 후보 7회(후보 4회, 연설원 3회), 이회창 후보 5회 등이었고, 나머지 7명의 후보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회당 20분의 연설시간을 채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회창 후보는 회당 5분씩만 신청했다.

연설원의 직업으로는 '가족행복시대'를 모토로 내건 정동영 후보측이 직장인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성공시대'를 기치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주력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측은 무직자를 비중있게 다루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날 밤 첫 전파를 타는 방송연설원은 한나라당에서 신청한 30세의 '백수' 청년 이영민씨. 부산 동래시 장에서 좌판을 하는 어머니를 둔 장남으로서 2002년 대선 때 "자갈치 아지매들"과 함께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연행뉴스

현장과 시각

예산심의 거부소동 유치하다



정후식

정치부 차장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이 반발 등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며 예산심의의 거부를 사안이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의원과 여성 공무원 개인간 대립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양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나아가 해당 의원 지역구민들의 의회향의 방문과 여성단체의 잇따른 성명 발표 등으로 파장이 장외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광주시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이메일 성명과 지방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시의회 유재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발을 하는 등 폭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예산 심의의 거부의사를 밝힌 뒤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예산 심의에 출석한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이번 문제는 의회 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언태도와 용어,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당사자간 문제"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 정책관과 광주시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시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킨 것은 사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두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높은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회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 의원의 지역구민 100여명이 시의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회의 태도에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광주지역 여성단체들도 유 의원에 대해 '여성평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 파문이 장외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가 주목을 끈 것은 지자체 간부 공무원의 경우 예산 심의에 대한 예산 심의 거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중차대한 사태"라며 이 사건을 '집행부의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시의회와 갈등을 부르기도 했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태도와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국회에서도 보기 힘든 고압적 자세와 업무 파악 수준의 단발성 질문은 수감기관 관계자들의 인내력을 시험하곤 한다.

하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 사태가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과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나 장외 여론전을 통한 기싸움은 생체기반 더욱 키울 뿐이다. 10년을 갓 넘긴 지방자치가 '위민(爲民)의 자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측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who@kwangju.co.kr

장성군수 김한중·김양수 후보 유세 대결

백도선 장흥군수 후보·양혜령 광주시의원 후보 지지 호소

12·19 재·보선 현장

○장성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양수 후보(전 전남도 행정혁신국장)는 1일 장성역 앞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대규모 유세를 갖고 "장성을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무소속' ▲조직 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무조직' ▲금권선거 탈피를 위한 '클린선거' 등 '3무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해 눈길을 모았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중 장성군수 후보는 1일 장성역 앞에서 순화규 공동선대위원장, 김효석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유세를 갖고 "하나로 화합하는 명품 장성"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2일에는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삼계면 사창재대시장을 돌며

지역민심을 살피고 장성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백도선 장흥군수 후보는 지난 29일에 이어 2일 이인제 대선 후보와 함께 정남진 토요일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지방자치 12년동안 장흥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부모들만 남은 땅이 됐다"며 "장흥을 살릴 책임자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백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는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등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다.

○광주시의원 동구 제1선거구 재선거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양혜령 후보는 3일 중앙당 '여성행복세대'와 합동 유세전을 펼쳤다.

양 후보는 이날 전국 순회 지원유세에 나선 여성행복세대와 함께 산수동 5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계림동, 산수 1·2동 등 선거구 전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빗속 유세방송 겨울 비가 내린 2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 차량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에 나란히 주차한 채 유세방송 대결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노벨상 행사 범여 결집 계기될까

범여권 정치인 한자리... 이인제·문국현 후보 등 참석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7주년 기념행사가 분열된 범여권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매년 개최된 DJ

노벨상 기념행사에는 범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왔으며 올해도 범여권 정치인들이 모여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김 전 대통령측은 주요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정·관계, 언론계, 학계, 주한 외교사절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뿐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참석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않아 범여권 주요 후보간 조우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행뉴스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필리핀 영어캠프는 겨울방학 동안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영어 실력 향상
- 2. 문화 체험 기회
- 3. 해외 여행 경험
- 4.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문의: 02-1234-5678